

추운 겨울 나눔 있어 훈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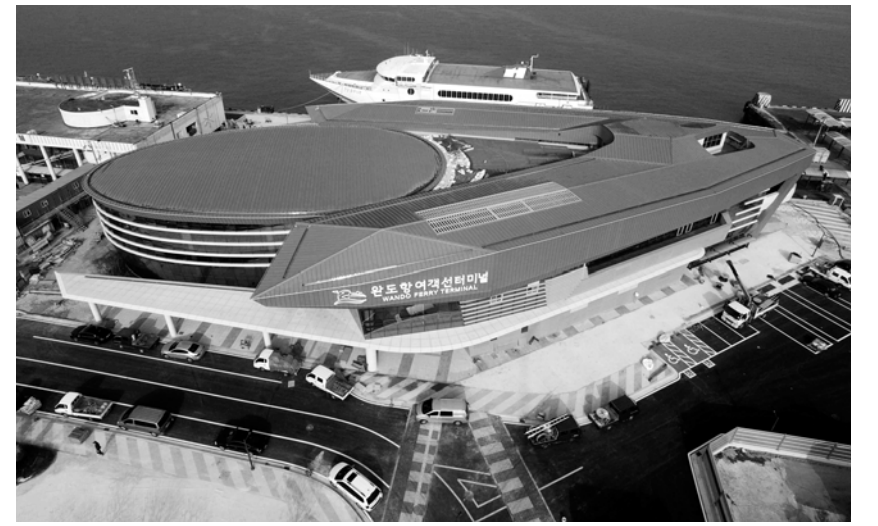
해남군 '희망더하기+' 4년새 524명 2억2900만원 후원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학비생활비·명절 위문품 등 지원

해남군이 추진중인 나눔 캠페인인 '따뜻한 해남 희망더하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희망더하기+' 사업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뒤 현재까지 524명이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며 정기 후원자로 나서 2억29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았다.

'희망더하기+' 사업은 자발적 후원자들이 매달 일정액을 해남군 모금계좌에 적립하면 군은 모금액 전액을 해남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모금활동'이다.

해남군은 524명의 정기후원자들이 매월 1만~10만원씩 낸 모금액으로 올해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학비지원(1300만원) ▲생계곤란자 생활비지원(300만원) ▲저소득층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1800만원) ▲주택 개보수사업(3700만원) 등에 사용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웃들의 움추린 어깨를 감싸안으려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해남군은 지난달 공무원, 기관·사회단체,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후원자 발굴에 나서 215명의 참여를 추가로 이끌어냈다. 공무원 124명과 지역민 91명이 어려운 이웃 돕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정기 후원금을 약정, 연간 26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추가로 마련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회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민간 주도의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완도 여객선터미널 3년만에 완공

郡, 내달 9일 준공식

대표적 해양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완도에 여객선터미널(사진)이 새로 건립됐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다음달 9일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선터미널 준공식을 개최한다. 여객선터미널은 국비 177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착공했다. 지상 2층(연

면적 4785㎡) 규모로 대합실, 매표소, 사무실 등을 갖췄다. 완도지역은 청산도와 보길도 등 대표적 해양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매년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낡고 협소한 여객선터미널로 인해 지역민들과 여행객들의 불편이 컸다. 완도군은 여객선터미널 신축을 계기로 완도항을 관광 미항으로 도약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chung@kwangju.co.kr

해남 농수특산물 홍보대사 '산지페어'

유통센터 구매 담당에 생산·가공시설 외 지역 관광지 등 소개

'생산·가공시설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고 대표 먹거리를 제공, 소개하는 코스까지... 해남군이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해 대형 유통센터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페어(fair) 일정이다. 단순한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구매 담당자들을 직접 현지로 초청, 생산자와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생산·가공 시설을 보여주고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맞춤형 관측활동 뿐 아니라 지역 투어를 통해 관광자원과 먹거리까지 소개, 해남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식으로 참가자들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슈퍼 구매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1박 2일간 진행된 산지페어도 이같은 형태로 이뤄졌다. 해남군은 앞서 롯데슈퍼와 절임배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은 이날 쌀 가공시설인 육천농협ok라이스센터, 절임배추생산시설(해남들), 친환경육가공시설 등을 보여주며 해남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공을 들였다. 이후 땅끝모노레일, 우항리공룡화석지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 먹거리로 차린 만찬과 기념품을 제공, 해남의 맛과 멋을 각인시키는데 주력했다. 해남군은 롯데슈퍼 뿐 아니라 대형 호텔, 유통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방식의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생산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수도권 등 전국 호텔, 유통구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역 농산물 마케팅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사랑으로 버무렸어요"



진도군 의신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최근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으로 담근 김장을 지역 소외계층 200여세대에게 전달했다. <진도군 제공>

해남군수협 전국 첫 전자경매 도입

물김 위판장 어란·학가·송평·구성·산소 5곳

해남군수협은 최근 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어란 위판장에 전국 최초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남군수협은 5개의 물김 위판장(어란·학가·송평·구성·산소)을 운영중으로 이번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업인들 사이에서 경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경매시스템은 5000만원을 들여 중

매인 개인별 무선 응찰기를 활용, 경락과 동시에 경락가가 전광판에 게시되는 방식이다. 신속하고 빠른경매가 진행되면서 어업인과 중매인, 경매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해남군수협 관계자는 "어란 위판장의 전자경매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위판장 내 곳으로도 확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인구 3%는 다동이 가족

郡, 셋째아 이상 가정 조사...12개 읍·면 510가구 1584명

완도군은 출산장려 양육비로 첫째·둘째아에게는 각 100만원을, 셋째아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36개월 분할금 1000만원)을 준다. 셋째아 이상을 둔 부모들에게는 돌맞이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준다. 1인당 30만원씩 주는 산생아 양육비는 기본이다. 완도에서 이같은 혜택을 받는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은 510가구(15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셋째아 이상' 가정을 조사한 결과, 완도읍에 거주하는 266가구가 셋째아 이상을 두는 등 12개 읍·면 510가구가 셋째아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 전체 인구(11월말 기준 5만2125명)의 3.03%에 해당하며 완도읍이 266가구(8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외 노화읍이 67가구(210명), 보길면 42가구(132명), 군외면 31가구(101명) 등의 순이었다. 완도군은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자녀 출산 우대 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완도군의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의 경우 지난해 1.82명으로 전년(1.76명)보다 높아졌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chung@kwangju.co.kr

진도 귀농·귀어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진도로 귀농·귀어하는 주민들은 토지나 건물 구입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토근니눔!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관내 7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을 받아 ▲부동산 임대·매매계약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경매·관리분석 ▲분양정보 등 전문 상담도 무료로 안내키로 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